

##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 제 13장 진짜 즐거움에 대해서

#### ◆ 1교시 영혼의 세 가지 즐거움

##### ▲ 누가 더 행복한가

스테파노스 넘버로 580에 b, 거기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마치 최종 판정자가 발표를 하듯이 자네도 것처럼 판정해주게. 자네 판단에 따를 경우에 행복에 있어서 누가 첫째이며, 누가 둘째이며, 모두 다섯이니까 순서대로 한 번 말해보라.” 정의로운 인간은 왕도 정제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왕도정제적인 인간 명예정제적인 인간, 과두정제적인 인간, 민주정제적인 인간, 참주정제적인 인간, 이제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왕도정제적인 인간이 가장 정의롭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참주정제적인 인간이 가장 나쁘고 비참하고, 이렇게 된다. 지금까지 다섯 종류의 사람을 쭉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지를 봤으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한 가지 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둘째 증명은 582쪽으로 넘어가서요. d라고 된 데에. 거기까지가 한 가지 증명, 둘째 증명도 괜찮은지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 ▲ 세 부류의 인간과 세 가지 즐거움

“영혼에 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bedone)도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영혼이 셋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지요, 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그것으로써 배우게 되는 부분이요,” 이성이지요, 이게.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써 사람이 격하게 되는 부분”, 이게 기개입니다. “셋째 것은 다양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지만 욕구적인 부분(to epithymētikon)이라고 우리가 불렀다. 먹는 것 성적인 것, 그것에 따르는 모든 것과 관련된 욕구들(epithymia)” 그리고 이걸 또 돈을 좋아하는 부분이라고도 했는데, 이런 욕구들이 무엇보다도 돈을 통해서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의 즐거움과 좋아함(사랑:philia)을”, 581 a 계속 나갑니다. 583쪽이요. “좋아함을 이로움(kerdos)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돈을 좋아하는(philochrēmaton) 부분, 이(利)를 탐하는(philokerdos) 부분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지우지 않고 얘기를 할게요. 돈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혹은 이득을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격정적인 부분, 기개적인 부분(to thymoeides)은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승리하는 것 명성을 떨치는 것을 지향(志向)한다.” 그래서 이기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뭐냐, 배움을 좋아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 잘 아시다시피 지혜를 좋아하는 게 필로소프(philia)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 그리고 배움. 배움을 좋아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84쪽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영혼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배를 하겠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지배를 해서, 바로 이런 까

답으로 우리가 인간들의 일차적인 세 부류를 지혜를 사랑하는 부류, 이기기를 좋아하는 부류, 이(利)를 탐하는 부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즐거움에도 세 종류가 있어서 그것들 각각에 속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혜를 좋아하는, 지금 여기 부분이라고 쓴 것을 사람으로 바꾸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각각에 해당하는 즐거움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 ▲ 세 가지 부류의 인간에 대한 논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다섯 종류의 사람 얘기를 쭉 했잖아요. 다섯 종류의 사람 얘기를, 사실 정의로운 사람을 5권의 말부터 얘기했다고 한다면, 5권, 6권, 7권 얘기하고, 8권에서 세 사람 얘기하고 9권에서 여기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 사람 지금까지 쭉 얘기했어요.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은 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명예정체적인 인간,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과도정체적인 인간, 돈을 좋아하는 사람, 딱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예요. 둘은 어디 간 거예요? 민주정체적인 인간과 참주정체적인 인간. 앞에서는 다섯 종류를 얘기하고서 뒤에는 세 종류로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뭔가 좀 안 맞는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 부분 얘기한 것이, 이성, 기개, 욕구라는 영혼의 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영혼의 세 부분이 한 부분은 지혜를 좋아하는 부분, 한 부분은 명예를 좋아하는 부분, 하나는 돈을 좋아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각 부분이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다 욕구하고 관련이 있는 애들이예요. 이성이나 기개가 주도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도정체적인 인간, 민주정체적인 인간, 참주정체적인 인간, 어쨌든 간에 이쪽(지혜를 좋아하는 사람) 이쪽(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쪽(돈을 좋아하는 사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애초에 세 종류의 분류를, ‘지혜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이성주도적인 사람, 기개주도적인 사람, 욕구주도적인 사람’, 만약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세 개 합쳐서 이쪽, 이렇게 넣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욕구 주도적] 인간... 기개적인 부분이 주도하는 [기개 주도적] [이성 주도적]... 지금 껍쇠 괄호 한 이런 방식으로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의로운 인간? 이성주도적인 인간. 명예정체적인 인간? 기개주도적인 인간. 나머지 세 종류의 사람들 전부 다 욕구주도적인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 분류가 딱 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분류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지. 그런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혜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민주정체적인 인간하고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왜, 이 껍쇠 괄호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 좋아하는 사람·명예 좋아하는 사람·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도대체 왜 욕구적인 부분이 돈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사실 애초에 욕구적인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걸 좋아하는 욕구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말이에요. 또 사실 문제가, 기개하고 명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지도 그렇게 썩 분명치는 않아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개적인 부분, 많이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플라톤을 얘기하게 되면, 돈, 명예, 지혜 이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영혼의 삼분설 얘기도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기개라고 얘기할 때 이건 화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화내는 부분하고 명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것도 그렇게 썩 분명치가 않고요. 이런 저런 욕구들하고 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그렇게 썩 분명치는 않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기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까 읽었던 부분 583쪽 보면요. 582쪽 끝에서부터 “먹는 것, 마시는 것,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돈을 통해서 충족되기 때문에 이런 걸 돈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불렀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욕구들이 돈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좋아하는 부류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상한 것이, 특히나 아까 불필요한 욕구들하고 필요한 욕구들, 전부 다 욕구적인 부분 내에서의 불필요한 욕구와 필요한 욕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필요한 욕구는 돈 만들어주는 욕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부분하고 상관이 있는데, 불필요한 욕구는 오히려 낭비적인 욕구라고 그랬어요. 돈 좋아하는 것하고 좀 반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 지혜, 명예, 돈 - 세 가지 즐거움의 비교

먼저 이 세 부분으로 나눈 맥락을 생각해보면 어떤 맥락이나 하면, 영혼이 세 부분이 있어서 즐거움도 세 종류의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즐거움이 진짜 가장 좋은 즐거움인지 한 번 따져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논의가 뭐냐 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서 뭐가 제일 즐겁냐고 얘기하면, 각자가, 이제 584쪽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제일 많이 찬양할 것이다. 돈벌이 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것,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즐거움이 진짜 큰 즐거움이라고 그럴 테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부터 생기는 즐거움이 진짜 좋은 즐거움이라고 그럴 테고요. 그 다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앎을 얻었을 때 생기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 지혜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와 명예와 돈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바를 이 세 가지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돈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 명예를 얻었을 때의 즐거움, 지혜를 얻었을 때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즐거운 삶을 사느냐, 이런 걸 따지려고 하니까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하는 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프랑스 음식

먹으면 즐겁겠지, 하지만 진짜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내가 풀었다, 뭐 이랬을 때, ‘그 생기는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다.’ 무슨... 누구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내가 풀어서 딱 했을 때, 막 고생을 하다가 딱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희열을 한 번 느껴 보면 프랑스 음식 잠깐 먹고서, 뭐 먹고 싸면 그만이고, ‘그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 문제 푸는 게 즐겁긴 왜 즐거워, 그게. 고통밖에 없지. 답 맞았으면 맞았네, 다행이다.’ 이라고 ‘그게 즐겁긴 뭐 즐거워.’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TV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뭐 좀 된 것 같고, 그 때의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각각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얻었을 때 얻는 즐거움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면서 살거든요.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돈 버는 게 나한테 즐겁지 않다고 한다면 돈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주 큰 명예를 얻었을 때의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고요.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혜를 얻었을 때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추구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수학자들, 수학 하셨지만. 수학했다고 돈이 나와, 뭐 누가 알아주기를 해. 물론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면 돈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혜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최고다, 이 사람은 명예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최고다, 이 사람은 돈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는데, 각자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느 즐거움이 더 큰 즐거움이라고 어떻게 따지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최고라고 그럴 테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게 최고라고 그럴 테고 다 다른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따져봐서 사실은 지혜에서 얻는 즐거움이 최고라는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 ▲ 세 가지 부류로 나눈 이유 - 쾌락의 등급 판정이 어려운 인간유형의 탈락

애초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왜 민주정체적인 인간하고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빠졌느냐,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종류의 쾌락이 가장 좋은 쾌락이냐. 쾌락들이 여러 종류의 쾌락이 있는데, 쾌락들의 등급을 한 번 매겨보자. 그게,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에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한 건데요.

민주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 보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이때는 이게 좋고, 저때는 저게 좋고, 그때그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지혜로부터 얻는 쾌락이 좋습니까, 명예로부터 얻는 쾌락이 좋습니까. 돈으로부터 얻는 쾌락이 좋습니까, 라고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요’ 어느 게 좋다?, ‘다 똑같아, 어느 게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아, 이게 좋아 보이네, 해서 어떤 때는 철학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운동하는 것, 몸 단련하는 것, ‘어, 이게 좀 좋아 보

이네.’ 몸 단련해서 건강한 사람 되는 것, 이게 좀 거기서부터 얻는 쾌락이죠. 그때그때 그냥 아무 때나 생기는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어느 쾌락이 어느 쾌락보다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도대체가 질문 자체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다 똑같아.’ ‘어느 게 더 좋냐?’ ‘몰라’ 그럴 사람이에요. 어느 쾌락이 더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가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어느 쾌락이 좋냐, 라는 거, 심판으로, 말하자면 세 사람이 나선 거고, 지혜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이 나선 거고,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그런 데에 심판으로 아예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거나 그냥 다 좋다, 좋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민주정체적인 인간도 분명히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하고,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이 최고인데 그 생활 방식은 뭐냐면 특정한 종류의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쾌락이 다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종류의 쾌락이 좋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더 좋다, 라고 특별히 나설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성적인 것에서 오는 쾌락이 아마 제일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문제는 그런 종류의 대답을 내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어떤 종류의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성이 어떤 종류의 판단들을, 돈이 진짜 좋은 것이라는 판단들을 내려주고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이런 판단들을 내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워낙 저열한 종류의 욕구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성이나 기개가 도대체 그런 종류의 욕구를 승인해줄 수가 없을 만큼 저열한 욕구를 추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욕구들. 이 사람은 도대체 이성이 판단을 내려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간 중간에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술 취한 사람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애초에 어느 종류의 쾌락이 좋으냐에 관관으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과두정체적인 인간 정도는 되어야지 어느 쾌락이 진짜 좋은 쾌락이냐, 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심판 자격으로 나설 사람이고, 애는 도대체가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욕구들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어느 종류의 쾌락이 진짜 종류의 쾌락이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재판관의 자리에, 판정의 자리에 나서기조차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가 다섯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지만, 어느 종류의 쾌락이 좋으냐를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 종류의 사람만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오늘 얘기한 것 말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과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탁월함은 삶에서 발휘를 해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584쪽에 c에 중간쯤에 보면 “우리가 인간들의 일차적인 세 부류(genos)를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섯 종류를 얘기했는데, 인간들이 그냥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차적인 세 부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 때 일차적이란 말은, 물론 제 해석입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어도 그 사람의 삶에서 최소한 괜찮은 구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종류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놓고 보자면, 민주정체적인 인간,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빠지고 세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 그래서 이 셋은 배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해석인데요. 이 해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이후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를 봐야지 정당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9권 끝나는 데까지 논의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간이 남으면 10권에 대해서 간략한 언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9권, 지금 이제 580 정도부터 9권 끝나는 데까지 거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4권부터 얘기해서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한 것들의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2교시 진짜 즐거움에 대한 인식론적 논변

### ▲ 진짜 즐거움을 판단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

지난 시간에 국가 9권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봤지요. 지혜를 사랑하는 종류의 사람, 그 다음에 명예를 사랑하는 종류의 사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종류의 사람, 이것을 이야기 했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맥락이, 과연 어떤 것과 관련 있는 즐거움이 가장 좋은 것인가, 진짜 즐거움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문제는 각 종류의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가장 즐거운 거다, 라고 각자 주장을 할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건지를 어떻게 따지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582에 a를 보시면요, 585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나. 훌륭한 판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에 의해서 판정을 얻어야만 할까. 경험(empeiria)이나 사려 분별(phronēsis) 또는 이성적 추론(logos)에 의해서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기준(kritērion)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 없다, 라는 건데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어서 쾌락이 굉장히 좋은 거다, 이게 진짜 즐거운 거다, 라고 얘기하고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었을 때 생기는 즐거움, 쾌락 그것이 진짜다, 그게 진짜 즐거운 거다, 라고 주장을 할 테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벌었을 때 혹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이럴 때 얻는 쾌락이 진짜 즐거운 거다,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느 게, 각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니까 그 중에서 진짜가 뭐냐 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각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될 텐데,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두 종류가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경험이고요, 하나는 이성적인 추론,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는 두 가지 기준에서 비추어 볼 때 지혜가 진짜다, 라는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 경험이라는 기준을 통해 본 최고의 쾌락, 지혜

먼저 경험하고 관련해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나는 지리산이 진짜 좋다, 누가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리산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알프스가 최고야, 라고 누가 어떤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알프스도... 히말라야 이런 데는 가야지, 그게 진짜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서로 다 자기가 가본 산이 최고다, 라는 어떤 주장을 한다고 그래 봐요. 그런데, 지리산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지리산밖에 안 가본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그래 봐요. 그 사람이 지리산만 가보니까, 아, 지리산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리산도 가보고 알프스도 가봤는데, 둘 다 가보니까 알프스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리산밖에 안 가 봤으면 알프스는 안 가 봤으니까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지리산이 좋은지, 알프스가 좋은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둘 다 가 본 사람이 알프스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더 있단 말이에요. 알프스 안 가봐서 지리산이 좋아, 난 알프스도 가보고 지리산도 가봤어, 그러면, 그 맥락에선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사람이 나와서 나는 지리산도 가보고, 알프스

도 가보고, 히말라야도 가봤는데 히말라야가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얘기는 그런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를 탐하는 사람, 582에 a 계속 보면요. b 있는데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쪽 즐거움들에 대해 맛을 보는 게 불가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고, 성적인 관계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들 같은 건 다 맛볼 수밖에 없었던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와중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육체적인 즐거움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걸 다 얻었다, 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꾸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득을 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혜의 추구에서 생기는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은 맛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만큼 그 때의 즐거움만큼 더 큰 즐거움이 없, 누군가가 그런 주장을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지금 책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진리를 탐구했을 때 생기는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네가 몰라서 그만 소리 하는 거지, 한 번 해봐, 그러면 그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 히말라야 가본 사람이, 너, 히말라야 안 가봐서 그만 소리 하는 거지, 한 번 가보면 그게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명예의 경우는 어떠냐. 명예의 경우에는 아까 생존을 위해서 누구라도 육체적인 즐거움 같은 건 맛볼 수밖에 없었던 건데, 명예를 좋아하는 경우에도 보면, 586쪽에, 582에 c 있는 데 중간쯤에 보면요. “명예라는 것은 각자가 목적인 바를 성취하게 될 경우에 누구에게나 따라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용감한 사람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잘 하면 명예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것에서 생기는 어떤 즐거움도 다 경험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못 풀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문제 하나도 못 풀면 즐거움 리가 없어요. 그렇죠. 머리만 아프고. 풀고 막 풀리고 막 이래야지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지. 문제도 풀고 그러면, ‘와 대단하다 재는 문제도 다 풀고 이러네., 그러면 그거에서 생기는 어떤 명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명예를 통한 어떤 즐거움도 맛볼 수가 있는 거다,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탁월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기도 일단 좀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알았을 때 생기는 즐거움이 최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세 종류, 아까 얘기한, 돈을 많이 벌지는 않겠습니다만, 돈 벌어서 생기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일단 육체적인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밥 먹고 이런 것들, 육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즐거움의 일종이라고 봤을 때 그런 거 다 겪어 봤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하고 관련된 것도 다 겪어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덧붙여서 정말 앞에서 생기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도 다 겪어봤다. 그러니까 다 겪어봤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장 믿을 만 하다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 ▲ 이성적 추론이라는 기준을 통해 본 최고의 쾌락, 지혜

그 다음 얘기는 경험이 어찌됐든지 간에, 예컨대 아까 알프스하고 히말라야하고 지리산 이 경우에, 아까 경우에는 지리산만 가본 사람, 지리산도 가보고 알프스도 가본 사람, 지리산, 알프스, 그 다음 히말라야, 다 가본 사람, 뭐 그 세 종류를 얘기했는데... 다 가본 사람이라고 해서 다 히말라야가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누군가가 다 가보니까 히말라야가 최고야, 다른 사람이 그래, 나도 다 가봤거든, 다 가봤더니 지리산이 역시 최고더라, 이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수는 없을 거예요. 너만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나는 지리산이 좋더라. 다 해본 사람들 중에서 히말라야가 좋다, 지리산이 좋다, 이런 의견의 차이가 생겼다면 그 때는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그럴 경우에는 히말라야가 좋은 어떤 이유를 대고요. 지리산이 좋은 이유를 대고, 어떤 이유들을 막 대서 어느 게 진짜 좋은지 따져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따져보는 것이 바로 뭐냐, 어떤 추론·논변 이런 것을 통해서... 586쪽에 끝에 보면, 로고스(logos)라고 얘기돼 있죠, 로고스. “이성적인 추론, 논변 이런 것으로 판정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아까 히말라야하고 지리산의 경우에는, 히말라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특별히 논변에 밝은 사람이고, 지리산 좋아하는 사람은 논변에 밝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못 해요, 그렇죠? 서로, 히말라야가 좋다는 사람하고 지리산이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난 논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 사람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논변은 결국 뭐하고 관련 된 거냐. 그건 결국 지혜하고 관련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만한 사람 이니까,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들, 지혜와 명예와 돈과 관련된 육체적인 쾌락, 이런 쾌락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뛰어난 쾌락이냐. 지혜와 관련된 쾌락·명예와 관련된 쾌락·육체와 관련된 쾌락 이 세 가지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난 쾌락이냐. 가장 진짜 쾌락이냐. 가장 훌륭한, 가장 즐거운 쾌락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가장 믿어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이 논변을 사용하고 어떤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요. 그래서 세 종류의 쾌락 중에서 어느 종류의 쾌락이 가장 뛰어난 것이냐, 이 판단을 할 때는 결국에는 다 지혜하고 관련된 쾌락이 가장 뛰어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아주 강력한 논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두 번째 논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 첫 번째 논변과 두 번째 논변

첫 번째 논변은 다섯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여섯 종류의 사람들, 8권·9권까지 쪽 얘기해서 부정의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삶을 보면 정의로운 사람하고 부정의한 사람을 보면, 참주적인 인간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 이게 첫 번째 판정이었고요.

두 번째 판정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쾌락을 가장 뛰어난, 훌륭한 쾌락이라고 하는지 한 번 보자. 보니까 세 종류의 쾌락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혜하고 관련된 쾌락 그 다음 명예와 관련된 쾌락, 그 다음 어떤 육체적인 쾌락. 그런데 이 쾌락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뛰어난 쾌락인지 따져보려니까 결국엔 따져보는 기준 두 가지를 적용해봤을 때, 다 지혜하고 관련된 쾌락이 최고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논변이고요.

### ▲ 세 번째 논변

어떤 의미에서 그 다음 세 번째 논변이 가장 중요한데. 588쪽입니다. 스테파노스 넘버로는 583에 b부터예요. b에서 보면 “이것들은 이처럼 연속된 두 가지 것이어서, 두 차례나 이겼다.” 두 차례나 이겼다, 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고요. 그래서 “세 번째를 해보자. 지혜로운 사람의 즐거움은 진짠데,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이란 것은 약간 진실 된 것도 아니고, 순수한 것도 아니고 환영(幻影)적인 것이다.” 무슨 그림자 비슷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b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뜨림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인 거다.” 가장 결정적인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보면, 정의로운 사람은 가장 부정의한 사람보다 729배나 더 즐거운 삶을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그... 소크라테스가요, 729배나 더 즐거운 삶을 산다, 란 얘기를 해요. 729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 드릴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결정적인 넘어뜨림이다. 넘어뜨림이라는 게 레슬링 경기로 생각하면, 정의로운 사람하고 부정의한 사람하고 넘어뜨리기를 하는데 가장 심하게 넘어뜨려서 넘어뜨린 결과, 정의로운 사람과 부정의한 사람의 차이가 729배나 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 ▲ 기만적인 고통과 쾌락

589쪽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쾌락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후의 논의, 플라톤만이 아니라 이후에 철학적인 논의에서도 중요한 논의가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괴로움하고 즐거움, 혹은 고통(lype)과 쾌락(hedone)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뭐, 일단 고통하고 쾌락은 반대되는 거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상태도 있다, 라는 거예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상태란 건 뭐냐. 이건 즐거움하고 고통스러움의 중간에 있어서 어떤 평온한 상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면, 아픈 사람은 이 아픈 것만 없어도 정말 좋겠다, 정말 즐겁겠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라고, 아픈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아픔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거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굉장히 즐거운 상태에 막 있는 사람은 그 즐거움에서 벗어나는 것

을 괴롭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둘이 막 좋아서 지내다가 떠나가서 시련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란 원래 알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5살 쯤 되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25살 이전에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던 상태였는데, 막 사랑하다가 27살쯤에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란. 그러면 25살 이전의 상태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괴로운 거예요. 거의 죽을 만큼 괴롭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즐거운 상태에 있다가 즐거운 상태가 끝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상스러운 것이 고통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원래 아무 것도 아닌 상태였는데, 막 고통스러웠다가 다시 그 고통이 없는 상태로 가면 그게 굉장히 즐거운 것이 되는 거고요. 또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막 즐거웠다가 그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가면 그게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참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590쪽에 보면... 원래는 즐겁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그 상태, 그러니까 어느 쪽도 아닌 것, 그것이 어떤 때는 즐거운 게 되고, 어떤 때는 괴로운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584 a에 보시면, 590쪽 좀 아래쪽예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은 평온인데, 이것이 둘의 중간에 있었던 것인데, 고통스럽지 않은 것을 즐거운 것으로 여긴다거나 기뻐하지 않은 것을 슬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괴로운 것하고 비교하면 중간의 상태가 즐거운 결로 보이고, 즐거운 것하고 비교하면 중간의 상태가 괴로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래서 끝에 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phainetai)것이다. 즐거움의 어떤 진실,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전부 다 보이는 현상들일 뿐이고, 거기에는 어떤 건전한 것이 없고 일종의 기만적인(goetēia)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91쪽에 넘어가서 보면요. 584에 b. 584 b, 거기 보면... 괴로움에서부터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움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기고, 이럴 때는, 괴로움에서 즐거움이 생길 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고통이 멈춰진 것, 그것을 바로 어떤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즐거움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길 때는 즐거움이 멈춰지는 것, 그것을 바로 고통이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서 나온 것, 고통이 없어진 것을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막 좋게 지내다가 시련의 경우에는, 없는 상태. 차인 거는 어떤 좀 적극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차인 결로 생각하지 말고, 헤어진 상태, 깨진 거. 깨졌을 때, 그건 어떤 즐거움이 멈춘 상태, 그걸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 말고도 다른 종류의 즐거움도 있지 않겠느냐.

#### ▲ 순수한 즐거움

고통이 멈춤으로써 생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혹은 즐거움이 멈춤으로써의 고통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의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얘기를 591쪽에서 하는데요.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냄새와 관련된 즐거움 같은 것. 냄새와 관련

된 즐거움은 그것이 그 이전에 어떤 괴로운 상태에 있었다, 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냄새가 참 좋네, 그렇게 느끼는 경우에, 그 경우는 그 이전의 어떤 고통이 없어짐으로써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렇죠. 아무런 냄새가 없다가 향기로운 어떤 냄새가 나는 경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은 순수한 즐거움이고요. 이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고통을 느끼게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괴로움을 남기지도 않는다. 이런 것은 순수한 즐거움이 된다, 라는 거예요.

#### ▲ 괴로움에서 벗어남으로써 생기는 즐거움

그런데 냄새하고 관련된 즐거움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만, 일반적으로 육체와 관련된 즐거움들이라는 건 전부 다 뭔가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생기는 것. 배고팠을 때 먹게 되는 것. 배고픔이라는 건 일종의 어떤 고통이고요. 목말랐을 때 물 마시면, 시원한 것을 마셨을 때 즐겁단 말이에요. 갈증도 좀 해소가 되고. 그것도 목마름이라는 어떤 고통의 상태를 해소시켜 줌으로써 생기는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육체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순수한 종류의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종류의 즐거움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앞으로 닥쳐 올 즐거움들이나 괴로움들에 앞선 기대(prosdokia)에서 생기게 되는 즐거움 같은 것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종류의 즐거움 같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네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앞으로 생길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삶은 고통스럽지만, 앞으로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그러면, 그게 좀 즐거울 수 있어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생기는 즐거움,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통의 중간하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하고 관련된 어떤 즐거움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포심, 한 달 뒤에 너 어떤 빗쟁이가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그럴 거야, 라고 그러면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당장은 고통이 없지만 한 달 뒤에 가면 이제부터 너 빗쟁이가 와서 나를 막 폭력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있는 물건들을 다 뺏어간다든지, 그런 고통의 기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된다는 즐거움의 손상과 관련된 괴로움,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 즐거움의 중단으로써 생기는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 ▲ 고통과 쾌락의 상대성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 얘기를 보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나 쾌락들에 대한 분석, 일종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 있어서도 소크라테스가 국가편에서 하는 이야기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에피쿠로스가 쾌락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쾌락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고통과 쾌락이 막 뒤섞여 있는 거다. 순수한 형태의 즐거움의

예로, 아까 냄새와 관련된 즐거움 하나 예로 들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즐거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쾌락과 고통이 뒤섞여 있는 것이지, 순수하게 쾌락, 즐거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면, 사실 어떤 상태가 있고요. 상태가 있어요. 육체의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상태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통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를 A라는 상태라고 그러고요. 이걸 B라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가게 되면, 이건 건강한 상태고, 이건 말하자면 어떤 병이 든 상태, 혹은 여긴 배가 특별히 고프지 않은 어떤 상태, 여기 가면 배가 고프게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생활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지죠.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파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갔을 때, B라는 상태를 고통이라고 하고, A라는 상태를 쾌락, 즐거움의 상태였다고 얘기해요. B의 상태에서 A라는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때의 상태가 또 역시 고통이었고, 이 상태가 즐거움이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컨대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더 위의 어떤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이 상태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B라는 상태로 갔을 때 보면 A라는 상태가 즐거운 상태였고, 이게 이제 즐거움이고, 이 과정에서 보면 이게 즐거움, 이게 고통이었던 말이에요. 내려가는 상태, 올라갈 때 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면, 아, 이젠 즐거워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는 고통스러워졌다고 그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려가면, 아, 이젠 고통스러워졌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려가는 건 고통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즐거움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올라갈 때는 이게 즐거움이 되면 뭐예요. 이거하고 대비해서 A라는 상태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하고 관련해서 보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어떤 상태에서 더 나은 어떤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이걸 이제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왔다가 이런 상태로 오면 이걸 이제 고통이라고 부르고. 그런 얘기가 592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는... 592쪽에 보시면요. “자연에는 위, 아래, 중간이 있다.” 아래에서 중간으로 이동한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를 위로 올라갔다고 그러죠. 자연적인 상태에서 보면 여기가 위예요. 자연적인 상태로서의 위입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아래. 여기가 이제 중간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자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상관없이 자연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어떤 위에 있는 상태, 자연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어떤 아래, 자연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어떤 중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상태에서 아래로부터 중간으로 올라가면 애가 이제 위로 올라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아래에 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 이제 나는 위로 올라섰네,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아직은 위에는 안 가봤어요. 몰라요. 이 사람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으니까, 내가 지금 위로 올라갔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와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위는 아직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면 아, 이제 내가 아래로 내려왔고, 자기는 이제 위에 있다가 아래로 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 ◆ 3교시 진짜 즐거움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변

#### ▲ 고통과 쾌락의 주관성

이런 식으로 진정한 위를 보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 중간의 상태가 그냥 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고통의 즐거움으로 보게 되면, 이 두 상태가 이 상태가 이거하고 비교하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 상태만 비교했을 때는 이 상태가 즐거움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C라는 위의 상태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고, B로 갔다가 A로 갔다가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A는 즐거운 거고 B는 고통인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단계에서도, 이 중간에도 계속 뭘 설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중간에 뭘 설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아, 이게 즐거운 거였어.’ 여기서 여기 내려가면 ‘아,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진짜 위예를 가보지 못한 사람은 중간을 가지고 즐겁다고 그러고, 아래를 고통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겠습시다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593쪽에서 보면, 가만히 보니까 이 “배고픔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언가가 비어있는 상태(kenōsis)”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경우에는 밥을 안 먹었으면 배가 비어있죠. 그렇죠. 배가 비어 있지만, 꼭 위가 차 있지 않더라도 육체의 영양분이 빠져나가면 배고픔도 느끼고 그렇겠죠. 목마름 같은 것도 육체에 수분 같은 게 빠져나가면, 그래서 무언가 없는 상태가 되면 목마름이 될 테고요. 마찬가지로 “무지(agnōia)라든지 무분별(aphrosynē) 이런 것도 영혼하고 관련된 무언가 비어있는 상태, 무지는 지식이 없는 상태고, 무분별은 분별력이 비어있는(kenotēs)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는 것... 여기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쾌락하고 관련된 어떤 형이상학적인 논변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틀에서 보면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내가 즐겁게 느끼는 것,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 이걸 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통스럽게 느끼는데, ‘너는 고통스럽지 않아’ 라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봤어?’ 뭐, 이렇게 얘길 할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주사 맞을 때, ‘이거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요. 아픈데, 안 아프다고, 이거 안 아픈 거야, 내가 아픈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야, 내가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서 보자면 고통이나 쾌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주관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관성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고통과 쾌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남들이 이거 안 아파, 안 아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프면 아픈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 진짜 고통스럽지,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 ▲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고통과 쾌락 - 진짜 즐거움에 대한 논변

소크라테스는 지금 상식적인 생각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고통하고 쾌락에 있어

서도 진짜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보면, 돈 벌어서 생기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고,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하고 지혜를 통한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지, 육체적인 쾌락 아무리 채워봐야 그 즐거움은 별 거 안 된다, 이런 얘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식론적인 논변, 뭐, 경험이라든지 판단을 통해서 어느 게 더 진짜 즐거움인지 이야기하는 간단한 논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논변은 인식론적인 논변이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쾌락에 대한 형이상학이라고 하면 좀... 존재론적인.

인식론적인 논변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 종류의 쾌락이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도 논변을 통해서도, 논변 혹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쾌락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육체적인 쾌락에서부터 얻는 쾌락이 진짜 쾌락이고, 어떤 앎을 통해서 생기는 쾌락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 것도 아니다. 즐겁긴 뭐가 즐거워, 고통스럽기만 하네.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너는 진정한 쾌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혜를 통해서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진짜 즐거움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수학 문제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사람은 그게 즐겁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즐거워요. 그게 왜 즐거워. 누가 옆에서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진짜 즐거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데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말이 좀 안 되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지금 상식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첫 번째 제기한 인식론적인 논변으로써는, 그러니까 특히 경험 같은 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다 경험해본 사람이 진짜로 잘 알지 않겠느냐. ‘너도 일단 한 번 해봐라. 해 보고 나서 얘기해’,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 맛있어? 저게 더 맛있어?’ 그러면, ‘일단 이거 한 번 먹어보고 나서 판단해.’ 이럴 텐데....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진짜 즐거움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얘기를 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위, 중간, 아래,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느껴왔어요. 우리의 느낌 자체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면 즐겁게 느끼고, 우리가. 막 배고프다가 밥 먹으면 그 느낌도 어떤 의미에서는 리얼한 거예요. 내가 진짜 즐겁단 말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면 진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진짜 배부를 때 먹으면 맛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맛 하나도 없단 얘기는 그것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상대적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적인, 그런 경험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적인 것이 아닌 어떤 객관적인 기준, 진짜 자연에 있어서의 기준이 있는 진짜 즐거움, 진짜 고통, 이런 걸 얘기하려고 소크라테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 ▲ 있음이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 = 진짜 있는 것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593쪽에서 보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들은 뭔가가 비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비어져 있는 게 채워지게 되면서 어떤 즐거움

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면 음식이 부족한 거니까 음식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이 채워지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육체가 뭔가 좀, 위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위가 차게 되겠습니다만, 육체의 영양분이 에너지를 잃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음식물을 보충하게 되면 양분들 같은 것들이 채워지고요. 육체의 어떤 부조화된 상태에서... 고대인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육체가 어떤 부조화된 상태에 있다가 조화된 상태로 된단 말이에요. 비어진 상태가 채워짐으로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면, 그게 즐거움이 생기는데, 채워질 때. '채워진다, 비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선 비어 있다, 라는 건 뭐가 없다, 라는 거죠. 그렇죠? 비어있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채워지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는 데 있어서, 있는 것에도 만약에 존재의 등급이 있어서 있는 것들이 진짜 짝 차게 있는 것이 있고, 그냥 대충 있는 거, 없는 거, 반쯤 뒤섞여있는 상태로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진짜 있는 걸로 채워지는 게 진짜 채워지는 거다. 약간 좀 뭐, 어떻게 보자면 어려운 말이고, 어떻게 보자면 뭐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물 한 잔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너희가 먹는 물이라는 건 자꾸자꾸 마셔야 되겠지만,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어떤 물을 내가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건 뭐냐면 물을 내가 먹었는데 그 물이라는 건 자꾸 없어져요. 자꾸자꾸 채워줘야 돼요. 그 물로 채워지는 건 뭔가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물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계속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서 예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혼의 영생의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통이 있는데, 통이 있단 말이에요. 통에 이걸 딱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애가 넣어도 썩 없어지다가 나중에 지나면 없어져요. 채워진 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음이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좀 이상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건 뭐냐면, 한 번 딱 있으면 없어지지 않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있어도 자꾸 없어지는 것하고, 한 번 딱 있으면 절대로 안 없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적어도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얘기 하느냐면, 딱 있으면 절대로 안 없어지는 것, 이거는 진짜로 있는 것. 있음이 더 충만한 것,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러는 거는 있음과 없음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있는 걸로 채워지면 뭐예요. 진짜 있는 것은 있음이 더 충만한 것, 여기 593쪽에 나오는 얘기를 하자면, "있음이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더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to mallon on' 이라는 건. 더 있는 것, 더 있는 것으로 채워지면 더 잘 채워지는 거고, 좀 덜 있는 걸로 채워지면 좀 덜 채워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순수한 존재(kathara ousia)에 관여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음식물 이런 것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약간 좀 덜 있는 거고요. 지식(epistēmē), 지성(nous) 이런 건 한 번 있으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건 진짜 있는 것, 더 충실한 의미에서, 혹은 더 있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 채워지게 되는, 그게 더 채워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 무슨 소립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 부분은 난 도저히 이런 황당한 소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일단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Q. 소크라테스 말로는 진짜 최고의, 그러니까 한 번 있으면 없어지지 않는 쾌락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지식과 지성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면 그 쾌락이...

A. 여기서 이제 아직 쾌락을 얘기하진 말고요. 그러니까 ‘있음’, ‘있음’하고 관련해서 딱 있으면 진짜 있기만 한 것이 있고, 있었다가 없었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직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성질상 적합한 것으로 차게 되는 것 = 진짜 즐거움

그래서 594쪽에서 드디어 쾌락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즐겁단 말이에요. 뭔가 비어있는 상태가 채워지게 되면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594쪽에 밑에서 보시면, “만약에 성질상 적합한 것으로 차게 되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면,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 더 진정으로 차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즐거움에 의해서 더 실제로 그리고 더 진실 되게 즐거워하도록 만들겠지만,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들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덜 진실 되게 그리고 덜 확실하게 차게 되고, 덜 미덥고 덜 진실 된 즐거움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위까지 갈 수 있는 건 진짜 있음의 종류의 것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면 이게 이 위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덜 힘든 걸로 채워지게 되면 이 정도까지만 갈 수 있고,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반론은 채워지면 즐거운데 아까 배가 부른 사람은 자꾸 먹으면 계속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배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성질상 적합한 것으로 차게 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적합하지 않은 게 거기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건 꼭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질상 적합한 것으로 차게 된다, 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맥락에서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더 있는 것, 존재의 등급이 더 높은 것, 존재의 등급이 더 낮은 것 이런 얘기들을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적인 쾌락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쾌락의 어떤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대화편은 사실은 『필레보스』라는 대화편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즐거움에 진짜 즐거움은 어떤 거고, 가짜 즐거움은 어떤 거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쾌락에 대한 분석, 일반적으로 볼 때 즐거움이 없어질 때 고통으로 느낀다, 고통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쾌락으로 느낀다, 그런 어떤 분석하고, 앞으로 자신이 나타날 때 존재론적인 쾌락, 진정한 쾌락, 가짜 쾌락,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이론의 어떤 스케치, 소묘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국가편의 맥락하고 관련해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적합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즐거움이다. 성질상 적합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즐거움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위, 중간, 아래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그림이 기본적으로는 진짜 자연에 있어서의 높은 단계, 중간 단계, 아래 단계가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그림은 직선적인 관계잖아요. 사실은 영혼은 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밥을 먹을 때의 즐거움하고 배웠을 때의 즐거움하고는 서로 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밥 먹었다고 해서,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 밥을 먹은 것의 즐거움의 종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가 좀 더 가면은 지혜에 의한 즐거움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루트(root)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배움하고 관련해서 이런 루트가 있을 수가 있고, 밥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루트가 있을 수가 있고, 명예하고 관련해서도 이런 루트가 있을 수가 있다. 이 정도의 생각들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맥락에 있어서는 성질상 적합한 것으로 차게 된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자가 혹은 정의로운 사람이 참주보다 729배 더 즐겁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